

# 미국의 인디언 언어 · 문화 교육 정책\*

이한규

(경희대학교)

**Lee, Han-gyu. 2010. The U.S. Policies for American Indian Cultures and Language Educatio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n Journal*. 18(2). 115-133. The U.S. is a multicultural society which values diversity as a great virtue. However, the history of the U.S. demonstrates that it uniquely took such agnostic and relentless attitudes towards native Americans and their cultures and languages so that the number of their population had drastically decreased till early 20C and more than half of their languages had already disappeared by that t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an account of; why the U.S. and its white people were so agnostic to native Americans as to try to exterminate them; what policies on culture and language were practised against them, and what social circumstances influenced such policies exerted on them and their languages. Through this study, we can see the close relationships between a nation's policies on culture and her language education. This study also suggest what strategies native Americans should take to revitalize their languages, and what policies on language education Korea should prepare for its future as a multicultural society.

**Key Words:** multiculturalism, American natives, English-Only campaign, language education

## 1. 서론

미국 정부의 문장에 새겨진 E Pluribus Unum (the one out of many)만큼 미국을 단적으로 정의해 주는 것도 없다. '다수로 이루어진 하나'를 의미하는 이 문구는 미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야기해 준다. 미국이 서로 다른 문화와 이념, 종교를 가진 다양한 인종이 모여 하나로 된 나라, 미국을 건설하였고,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이러한 다양성을 오히려 장점

---

\*부족한 글을 꼼꼼히 읽고 소중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으로 승화시켜 독창적인 사회,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고, 그러한 다양성의 조화야말로 미국의 미래를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처럼 다양성이 존중되는 미국이 역사적으로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들과 그들의 언어, 문화에 대해선 왜 그렇게 가혹했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을 펼쳐왔는지, 현재의 정책기조는 어떠한지를 분석하여, 미국의 사회역사적 배경과 정책기조가 언어문화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그리고 인디언 언어문화가 미국문화의 한 축으로 보존되고 유지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제안도 함께 하고자 한다.

미국의 인디언 언어문화 정책에 대한 연구는 4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는 미국이 다양한 문화와 민족을 미국사회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사회문화적, 정치적 관점을 역사적으로 접근해 봄으로써 미국이 취한 아메리카 인디언에 대한 언어문화 정책을 이해하고자 한다. 초기 미국 사회에서는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ts)가 정치적, 사회적 지배세력으로 자리 잡고, 이후 수많은 이민자들의 유입은 WASP 토착세력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져, 이민자들에 대한 배타적 정책을 사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미국 사회에 동화되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사용하였다. 특히 19세기 유럽 남부와 아일랜드에서 이민 온 가톨릭 신자들은 WASP 토착민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와 더욱 더 배타적이고 동화적인 정책을 강요하는 용광로(melting pot) 문화 정책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WASP 사회 문화로의 동화정책은 미국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와 민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세기 초반부터 문화 및 민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문화주의 정책이 실행되어오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의 변화는 미국 원주민에서 소수민족으로 전락해버린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생활과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즉 아메리카 인디언을 미국사회 문화에 동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버리도록 강요하였고, 이에 적응하지 못한 인디언 문화가 사라져가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 다행히 살아남은 인디언 문화는 다문화주의 정책에 의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동화정책이나 다문화주의 정책은 언어가 문화의 일부이기에 언어 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 관련성에 중점을 두고 다루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관점은 미국 사회가 보인 이중언어주의(다언어주의 포함)와 영어전용 운동(English Only Campaign)의 대립의 결과로 나타난 인디언교육정책이다. 이러한 관점은 다문화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다. 다문화주의를 정책기조로 삼은 경우에는 이중언어주의가, 문화 융화주의를 표방한 경우는 영어전용 교육이 우선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기조 변화는 인디언 교육에 큰 영향을 끼쳤다. 즉 사회문화적으로 동화정책을 시행하던 시기에는 학교에서 영어로만 교육(English Only instruction)을 하도록 하여, 인디언들의 미국화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후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의 교육은 다양한 문화의 특성과 가치를 존중하여 인디언 언어로 교육을 허용하였다. 특히 1990년 Bush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아메리카 인디언 언어법”(American Indian Languages Act)에 의해 인디언 언어를 교육 매체로 사용할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미국 사회가 인디언 언어를 공공 지원 교육 프로그램에 편입시키도록 하였다.

세 번째 관점은 인디언 사회와 문화에 대한 접근이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미국의 동화주의 정책에도 미국화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왜 수많은 인디언 언어와 문화가 사라지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인디언들의 세계관, 자연관, 자존심 등을 통해 미국사회에 동화되기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연스럽게 인디언과 그들의 언어의 소멸을 설명해줄 것이다.

네 번째 관점은 언어학적인 것으로 20세기 초에 인디언 부족 언어들이 사라진 것에 대한 대응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언어정책의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언어란 사용자와 더불어 존재하기에, 언어가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은 언어를 사용할 사람들의 삶을 보장해주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결과임을 보이고자 한다. 즉 화용론적인 관점에서 인디언 언어정책의 방향을 마지막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인디언 언어와 문화가 미국의 다문화의 한 축으로 활성화되기 위한 제언과, 이 연구가 끼칠 수 있는 기대효과를 한 국가의 언어정책적인 측면과 다문화 사회화 되어가는 한국의 미래 사회에 대한 방향 제시 측면에서 제시한다.

## 2. 인디언 인구와 언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이전까지 북미에서는 아메리카 인디언이 약 2백에서 7백만 명 정도이었고, 그들은 거의 300 여개에 달하는 별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1900년도에 이르러서는 인디언 수는 약 25 - 50만명 정도로 격감하게 된다. 인디언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수많은 인디언 부족어도 함께 사라지는 운명을 초래 하였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디언 부족어는 약 175개 정도 되지만, 약 90 퍼센트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디언 부족어 사용자가 노인들이고, 제 1 습득어로 자신의 부족어를 말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sup>1)</sup>

이와 같은 인디언 인구와 부족어의 급감은 미국 백인 정부가 주도한 수많은 정복 전쟁과 인디언 및 인디언 문화 말살 정책의 결과이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행한 부끄러운 인디언 대량학살 사건(예: 샌드크리크 대학살(1864), 운디드니 대학살(1890))에서도 찾아 볼 수 있고, 1830년의 인디언 이주법과 1868년의 인디언 평화 위원회, 1887년의 도스 법 등을 통해 인디

1) 2008년 12월 11일 발행 The Seattle Times의 기사, “Teaching Indian Languages Preserves Heritage too.”

언어와 문화를 말살하려 했다.<sup>2)</sup>

2차 세계 대전 이후 인디언과 인디언 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인디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인디언 사무국 통계에 의하면 2000년도에는 2 백만, 2007년에는 450 만 명에 이른다.<sup>3)</sup>

아메리카 인디언의 언어는 인도 유럽 어족의 경우처럼 상호 관련된 하나의 어족을 만들고 있지 않다. 북미의 인디언 언어들은 일반적으로 여덟 개의 주요 언어군으로 분류한다. 인디언 사무국(BIA)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 어군은 알공퀴안(Algonquian), 아타파스칸(Athapaskan), 카도이안(Caddoan), 이로쿼이안(Iroquoian), 머스크호기안(Muskogean), 페튜션(Penutian), 수우(Siouan), 유토-아즈테칸(Uto-Aztecan)이다.

### 3. 인디언의 현실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미국 시민들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고, 마음의 상처를 깊이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다. 그 이유는 크게 2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독특한 문화와 정신세계 때문에 백인 문화와의 동화를 거부한 결과요, 다른 하나는 미국의 인디언에 대한 가혹한 멸종정책이다.

인디언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정신이 깃들여 있다고 믿는다. 그런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며 집단생활을 하는 인디언에게,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백인문화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백인들의 인디언 및 인디언 문화 말살 정책의 결과로 그들은 생활터전을 빼앗기고, 자존감 상실과 패배감으로 희망을 잃고 척박한 인디언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된 생활을 살아가야 했기에, 그들에게는 자유와 희망이 보이지 않은 끝없는 비참함의 터널을 의욕 없이, 좌절에 젖어 걸어야 했다. 자기 고향에서 땅과 조상들의 생명과 모든 삶의 여건들을 박탈당한 채 쫓겨난 인디언들에게 삶의 의미와 의지, 희망을 어찌 기대할 수 있었을까? 그러한 인디언들이 부딪히게 된 사회문제가 높은 실업률, 도박문제, 알콜과 마약, 높은 자살률, 건강 문제 등이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지 모른다.

2) 샌드크리크 대학살(Sand Creek Massacre: 1864.11.29)은 콜로라도 주 샌드크리크 지역에 백기를 걸고 캠프를 치고 있던 인디언 샤이엔(Cheyenne)족 수 백명을, 그것도 대부분이 무장해제한 노인과 여자, 아이들을 치빙턴(Chivington) 대령이 이끈 미국 기병대가 기습하여 수 백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운디드니 대학살(Wounded Knee Massacre: 1890.12.29)은 미국 제 7기병대 500여명이 운디드니에 야영하고 있는 수(Sioux)족을 300명 이상 학살한 사건이다.

인디언 이주법(각주 8), 인디언 평화위원회(각주 13), 도스법(각주 10) 등에 대한 설명은 5-6절 참고.

3) 미국 내무성 인디언 사무국(The Bureau of Indian Affairs: BIA)은 1874년 설립되어,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토지를 관리하는 연방정부 기관으로 인디언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과거에는 보건, 교육도 담당하였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doi.gov/bia> 이다.

## 4. 미국의 인디언에 대한 적대적 태도

본 절에서는 미국에서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백인 이주민들이, 또는 미국 정부가 왜 그렇게 인디언에게 적대적 태도를 보여야 했는지 그 이유와, 적대적 태도를 보인 미국 지도자들의 발언을 살펴보기로 한다.

### 4.1 이유

미국 정부는 20세기 초까지 아메리카 인디언에 대해 그렇게 가혹하고 적대적 태도를 보이고 멸종에 가까운 정책을 견지하였고, 그 결과 수많은 인디언과 인디언 언어, 문화가 사라졌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첫째, 유럽의 초기 이주자들에게 인디언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정복해야 할 공동의 적이었고, 이를 통해 동질적 정체성을 갖게 해주었다.<sup>4)</sup> 각기 다른 종교와 문화적 색채를 지닌 유럽인들이 자신의 고유한 색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북아메리카 식민지에 정착하게 되고, 이러한 다양한 문화와 종교, 정치성향 등을 아울러 미국이라는 동질적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이용되었던 것이 아메리카 대륙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원주민, 즉 인디언들에 대한 적대감이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 물리쳐야 할 공동의 적이 있다면, 그러한 차이는 사소한 것으로 묻히고, 공동의 적을 향한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에 이주한 유럽인들은 대부분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강한 욕구가 원주민인 인디언과의 투쟁을 필연적으로 만들었고, 이런 투쟁을 통해 이주 유럽인들은 단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백인들의 프런티어 정신이라는 것이 사실 인디언 입장에서는 인디언의 삶의 근원인 토지를 착취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백인들의 서부개척, 골드 러쉬, 영토 확장 등, 이 모든 것이 인디언이 신성하게 여기고, 또 삶의 터전이었던 땅을 전제로 하기에 인디언은 저항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들의 처절한 저항을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디언을 말살시키는 일이었다.

셋째, 미국정부가 영국과 프랑스의 지배를 벗어나 독립을 위한 전쟁을 17세기 말부터 치를 때, 인디언들이 영국과 프랑스를 도와 전쟁에 참여 하였다. 특히 프랑스와의 7년 전쟁(1756-1763)의 경우는 미국의 유럽 이주민들에게 땅을 빼앗긴 원주민 인디언들이 프랑스를 도와 전쟁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또한 영국 본국의 가혹한 지배와 중상주의 정책에 반발하여 일으킨 미국 독립 전쟁(1775~1783)에서 이로쿼이(Iroquois) 족은 영국을 도왔다. 이로 인해 미국 식민지인들이 인디언들에 대한 적개심이 더욱 커진 셈이다.

4) 김봉중(2001:204)에서 유럽의 초기 이주자들이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해준 이유 중의 하나로 인디언들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들고 있다.

넷째, 초기에는 종교적 박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주했던 것과 달리, 점차 유럽 이주민들은 경제적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이주하였기 때문에, 인디언들에 대한 경제적 침탈이 무자비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모든 것에 정령(spirit)이 있다고 믿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생활하는 인디언은 물질적 소유 개념 자체가 없었다. 경제적 가치 개념이 없는 인디언의 정신문화와 모든 것을 물질적 가치로 판단하는 백인문화의 충돌이었지만, 우수한 무기를 갖춘 백인들의 경제적 야욕을 채우기 위한 무자비한 정복이 뒤따랐던 것이다.

다섯째,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유럽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인디언 문화와의 차이를 인정하려 들지 않고, 인디언들의 문화가 자신의 것보다 열등하다고 여겼다. 다만 그들은 열등한 문화를 지닌 인디언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고집하면서, 왜 백인 문화를 받아들여 미개한 생활수준을 벗어나려 하지 않은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따라서 백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은 미개한 인디언들에 대해 그만큼 크게 반발하게 된 것이다.

#### 4.2 미국 지도자들의 적대적 발언

인디언들에 대한 백인들의 적대적 태도는 미국 지도자들이 한 말을 통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지도자들의 이러한 적대적 발언은 정책에 반영되어 나타나 인디언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그들이 발언은 모두가 백인들이 스스로 미국 대륙의 주인이 되어 본래의 주인이었던 인디언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자신들이 인디언을 축출, 근절시켜야 하는 정당성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그 예를 일부 열거해 본다.<sup>5)</sup>

- a. 조지워싱턴: 우리의 당면 목표는 인디언 부락의 전면 파괴와 유린이다. 기본적으로 토지자물을 파괴하고, 더 이상 경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b. 벤자민 프랭클린: 지상의 문명인들을 위해서 저 미개인들을 근절하는 것이 신의 뜻이라면 술(알콜)이 적절한 수단이 될 것이다.
- c. 토마스 제퍼슨: 그들을 구해내고 문명화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토록 많은 고통을 감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행한 종족은 스스로를 방치하고 잔인한 야만성을 버리지 않으므로써 자신들의 근절을 정당화시켜왔다. 이제 그들의 운명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그들을 모조리 몰살시키자.
- d. 존 퀸시 애덤스(6대 대통령): 아무 때나 사냥감을 찾아 수천마일의 삼림을 헤매는 사냥꾼들 따위에게 삼림에 대한 권리가 있을 리가 있는가? 인디언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다.
- e. 앤드류 잭슨(7대 대통령): 인디언들에게는 지성도 근면함도 도덕성도 없으며 게다가 생활수준을 더 바람직하게 하려는 개선의 욕구도 없다. 다른 우수한 인종에 둘러싸인 이상 열

5) 출처: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720&table=forum1&level\\_gubun=onWasteful](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720&table=forum1&level_gubun=onWasteful)

등의 원인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것을 통제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환경의 힘에 의해 전멸될 것이다.

- f. 윌리엄 헨리 해리슨(9대 대통령): 창조주로부터 많은 사람을 도와 그 지역을 문명화시킬 운명을 부여받은 경우, 과연 소수의 야비한 미개인들이 거주하는 곳을 자연 상태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공평한 분배일까?
- g. 필립 셰리던 장군: 내가 지금껏 보아온 인디언 중 선량한 자라고는 죽은 인디언뿐이었다.
- h. 프랭크 보움: 우리의 안전은 완전한 인디언 제거에 있다. 우리 문명을 지키기 위해선 교화되지도 않고, 교화될 수도 없는 짐승들을 지구에서 소멸시켜야 한다.<sup>6)</sup>

## 5. 미국 다문화와 인디언 문화 정책

미국의 역사는 끊임없는 이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창기 유럽에서 이주한 사람들도 각기 다른 국가와 사회, 문화, 종교를 가진 채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을 하였고, 이후에도 다양성이 전제된 이민은 계속되었고 현재도 미국으로의 이민자 수는 일 년에 백만을 넘는다.<sup>7)</sup>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나라이기에 이민자들이 가지고 온 서로 다른 문화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또 시간이 흐르면서 먼저 이주한 사람들의 토착화로 토착민과 새로운 이민자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미국의 독특한 특징 중의 하나인 다문화에 대한 정의가 달라져 왔다.

다양한 문화가 미국적 정체성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 지, 즉 어떻게 미국적이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사회적, 시대적 흐름에 따라 크게 3 가지 동화정책으로 나타난다. 초기 문화다원주의(또는 다문화주의), 융광로 이론, 문화다원주의가 그것이다. 융광로 이론은 다양한 문화가 융광로 속에 섞여 하나의 미국적인 문화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문화다원주의란 문화적 다양성과 독창성이 보장되는 사회정책이다.

아메리카 대륙에 유럽 사람들이 이주하여 정착한 이후 19세기까지는, 비록 영국계 이주민, 즉 백인 앵글로 색슨 프로테스탄트들(WASP)이 미국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거의 모두가 이주민이라는 인식이 저변에 자리 잡고 있어, 다양한 문화, 종교, 사회, 인종의 존재와 독특성에 대한 인정이 전제될 수밖에 없었던 다문화 사회였다. 물론 WASP가 압도적

6) 프랭크 보움(Frank Baum)은 오즈의 마법사를 쓴 작가로, 이 발언은 운디드니(Wounded Knee) 학살이 있고 난 5일 후인 1891년 1월 3일, the Aberdeen (S.D.) Saturday Review의 사설에서 한 말이다.

7)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민간연구단체인 이민연구센터(The 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 <http://www.cis.org/>)의 2005년 보고서에 따르면, 9.11 테러 이후 강화된 이민규제 등에도 불구하고 2005년 3월까지 5년 동안 약 790만 명으로 급증하여 사상 최대치를 보였다고 한다. 이 이민자 중 절반 정도인 370만 명이 불법 이민자이다.

우위를 보이는 사회였지만, 타 문화를 자신들의 문화로 통합 또는 융합시키려 노력하지 않았다. 특히 가톨릭 교도인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인들과 독일인들은 다른 민족과 융화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 하였다. 초장기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의 민족, 국가가 그대로 이주한 것처럼 유지되어, 문화적 융합이 요구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따라서 미국은 시작부터 분명히 다문화 사회였다.

초기의 다문화주의가 영향을 끼친 인디언 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1830년 인디언 이주법(Indian Removal Act)이라 할 수 있다.<sup>8)</sup> 이것은 미국문화에 동화되기를 부정하는 인디언과 인디언 문화의 독특함을 인정하여, 그들을 백인사회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법으로, 이 법에 의거하여 인디언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인디언들을 그곳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미국 초기 다문화 사회는 시간이 흐르면서 수많은 인종과 문화가 유입되고 이들 문화와 인종을 미국이라는 용광로(melting pot) 속에서 융화시켜야 한다는 이론이 대두되었다. 용광로 이론이다. 용광로 개념은 새로운 이민자들이 인종이나 문화는 다르지만 평등한 입장에서 그 다양성을 미국이라는 용광로 속에 넣어 기존의 미국적인 것과 융해되어 가장 미국적인 문화를 탄생시킨다는 믿음이다. 하지만 이런 용광로 문화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의 상황이 영국계 백인 중심의 배타적 용광로 문화로 나타났다.

이 시기의 미국은 산업혁명으로 급격한 기술문화의 팽창을 가져왔고 또한 골드 러쉬 등으로 인한 대륙 횡단철도 건설에 막대한 노동력을 필요로 했는데, 이를 이민자들로 충족시켜 나갔다. 따라서 새로운 사람과 문화가 이민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미국에 먼저 이주한 사람들, 특히 영국계 백인을 중심으로 토착주의(nativism)가 형성된다. 특히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러 영국과 속원 관계인 아일랜드인 가톨릭 신자들의 대규모 이민으로 불안감을 갖게 됨으로써, 토착민들이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자신들의 미국 사회문화에 동화할 것을 강요하게 된다. 이런 배타적 용광로 문화가 요구하는 미국화라는 정책의 한 예가 미국 이민 조건, 취업 조건으로 영어능력을 의무화 시킨 것이다.<sup>9)</sup>

용광로 문화 이론에 의해 미국 정부가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들에게 강요한 미국화 정책은 인디언과 인디언 문화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나타났다. 1887년 의회에서 제정된 도스법(Dawes Severalty Act)은 인디언 가족 당 160에이커의 땅을 주어, 이를 사고 팔 수 있게 하였으며, 인디언 보호구역에 정부에서 관리하는 공립학교를 설립하고, 미국식 교육제도로 운영하게 하였다. 인디언들이 미국 문화에 자연스럽게 동화되게 한다는 계획이었다. 만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어, 영혼이 있는 땅을 사고판다는 개념조차 없는 인디언들에게 사유재

8) 물론 인디언 이주법은 백인들의 개척과 더불어 야기된 끊임없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아예 인디언들을 백인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었고, 인디언 보호구역 또한 그렇게 마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인디언 문화와 사회의 독특성을 인정해서라기보다, 백인들의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인디언을 격리시켰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주의로 보기는 어렵다.

9) 이 시기에 이민자들의 영어능력은 곧 미국에 대한 충성도로 해석되는 분위기였다.

산제도와 물질주의를 바탕으로 한 백인문화를 강요하는 것은 인디언 문화 자체를 부정하고 인디언 사회를 처참하게 흔들어 놓은 최악의 문화 정책이었다. 이것은 인디언들에게 백인 교육제도를 강제하여 인디언과 그 문화를 백인의 그것에 융화시키려는 인디언 문화 말살 정책의 첨병 역할을 하였다.<sup>10)</sup>

용광로 이론은, 비록 배타적으로 실현되었다 할지라도, 새 이민자들의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이 이론이 미국 백인들과 식자층으로부터 인기가 높았지만, 지식인들 중에서는 용광로라는 개념을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문화적 융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이민자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미국의 건국 정신과 상반되는 것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미국문화를 용광로식 융화주의에서 문화다원주의 또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로 되돌리고자 하였다. 다문화주의란 샐러드 보울(salad bowl)이론이라고도 불리는데 모든 인종 집단들이 서로 뒤 섞이지만, 백인 주류 사회에 동화하지 않고도 자신들의 문화적 독특성은 유지하면서 미국 문화의 한 축을 지탱한다는 것으로, 그러한 독특한 전통 유지야말로 미국의 다문화주의를 살찌게 하는 밑거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주의는 소수 계층 특히 흑인들의 권익을 찾으려는 다양한 시도로 나타났고, 그 결실이 사회, 정치, 문화 전반에 걸쳐 실현되어 왔다.

다문화주의 정신을 받아들여 인디언뿐만 아니라 미국 다문화주의 전통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사람은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인디언 재조직법(Indian Reorganization Act: 1939년)을 제정하여, 기존의 도스 법을 파기함으로써 인디언의 독특함을 인정하는 다문화주의 정책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다문화주의 신봉자인 존 콜리어(John Collier)를 인디언 사무국(BIA)의 감독관으로 임명하여 다문화주의 정신을 실현케 하였다. 존 콜리어는 인디언 문화의 상대적 고유성과 독특함을 인정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보호구역 내에 통학학교(day school)를 만들어 인디언 언어로 교육을 하도록 하였다.

## 6. 인디언 교육: 이중언어교육 vs. 영어전용교육

백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대륙의 주인이 되면서 인디언들을 교화하고, 동화시키기 위해 백인 교육제도에 의한 인디언 교육을 시작하였다. 문제는 인

10) 영화 '나를 운디드니에 묻어주오(Bury My Heart at Wounded Knee)'를 보면, 도스 상원의원이 도스 법을 제정, 시행하려는 배경을 잘 보여준다. 인디언을 말살시키기 위한 의도라기보다 도스는 어쩌면 백인들에게 땅을 다 빼앗길 것을 우려하여 인디언 스스로 땅을 관리하게 하게하고, 또한 인디언들을 교화시키고자 하는 우호적인 목적으로 도스법을 제정한다. 그러나 인디언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백인의 문화만 강요한 결과는 오히려 비참한 인디언과 인디언 언어, 문화의 말살을 촉진시키게 된다.

디언 교육을 인디언 부족어로 할 것인지, 영어로 할 것인지 이었다. 이에 대한 결정은 미국 사회와 정부의 몫이었고 이 결정은 미국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흐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었다. 본 절에서는 인디언 교육이 어떤 언어로 행해졌는지와 그러한 결정에 영향을 끼친 사건들을 시대적으로 살피면서, 백인 주도의 인디언 교육이 왜 실패 하였는지도 함께 살피고자 한다.

인디언 교육에 큰 영향을 준 것 중의 하나가 미국 사회에서 끊임없이 나타난 이중언어주의(bilingualism: 다언어주의 포함)에 대한 찬반 논쟁이다. 이중언어주의란 미국사회가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다언어 사회는 필연적이었고, 실제로 미국 헌법에도 영어를 공식언어(official language)로 지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중언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20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이중언어교육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반면 20세기 이후 등장한 영어전용운동(English Only Campaign)은 영어를 공용어로 하고 이를 법제화하려는 운동이다. 이 운동을 주관하는 단체(U.S. English, English First 등)에 의하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다양성의 차이를 극복하고 한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유 언어 때문이다. ... 요즘은 영어 이외에 다른 언어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운동이 팽배해져 감에 따라 미국 국민을 결속시키는 요소로서 영어의 위치가 위협받고 있다. 이중언어교육과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소수민족들로 하여금 영어를 배우기보다 자신의 국어를 유지하도록 조장한다.”(U.S. English, 1987)고 주장한다.<sup>11)</sup>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19세기 말까지 미국은 다문화를 인정하는 다문화주의 사회였고, 따라서 언어의 다양성 또한 인정하는 사회이었지, 단일 언어 사회가 아니었다. 이러한 다언어 사회에 대한 벤자민 프랭클린의 우려가 언어의 다양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케 해준다. 그는 펜실베이니아 독일인들이 영어를 거부하고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대놓고 고집하고 있음을 비난하면서 결국 의회 의원들까지도 의사소통의 문제를 겪어 통역자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또한 자신의 발언을 후회하였고, 오히려 영어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인식시키면 영어를 자발적으로 배우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소수 민족어의 권리를 인정하여 이중언어교육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만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디언 교육은 초창기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주로 선교사들이 선교 목적으로 담당했다. 선교사들은 인디언 부족어를 사용하여 교육을 하였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선교를 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정책 중의 하나가 1824년 체로키 부족과의 계약이다.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체로키어로 교육시키고 신문사를 구입하게 되어 아메리카 인디언 최초의 신문 The Cherokee Phoenix를 발행하기에 이르렀다.<sup>12)</sup> 체로키족은

11) U.S. English 홈페이지 <http://www.us-english.org/inc/official/states.asp>에 의하면 2008년 현재 영어를 법적으로 공용어로 인정하고 있는 주가 30여개에 달한다고 한다.

12) 주지의 사실이지만, 인디언들은 문자가 없었다. 체로키 부족은 백인 교육을 받은 세쿼이아(Sequoyah)가

1830년 인디언 이주법(The Indian Removal Act)에 의거해 남동 지역의 모든 인디언 부족들을 오클라호마로 강제 이주 당한 후에도 23개 학교를 세워 이중언어교육을 시켰다.

다문화주의에 의한 이중언어교육은, 앞 절에서 언급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팽배한 용광로 문화주의에 의해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미국은 새로운 이민자들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그들이 미국문화에 동화하지 않고 자신들의 언어, 문화를 고집하는 것에 불만과 두려움을 갖게 되고, 영어를 빨리 배우지 않는 것에 대한 비난을 하게 된다. 그리고 미국문화에 융화되는 척도로 영어능력을 요구하게 되고, 그 결과 영어전용교육이 싹트게 되었다.

용광로 문화주의를 바탕으로 영어전용 교육을 촉발시키는 두 가지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 19세기 중반쯤까지 미국 이민자들의 다수를 차지한 아일랜드계 가톨릭 신도들의 이민이다. 이들은 미국 초기 이민자들의 주류를 이룬 영국계 프로테스탄트들과 종교적 갈등을 빚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반가톨릭 정서가 팽배하게 되었고 이것이 영어전용교육을 더 강화시킨 결과를 낳았다. 인디언 부족들의 교육을 통해 선교 목적을 성취해왔던 가톨릭 선교사들은 교육적 효과를 위해 인디언 부족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영어전용 운동에 반발하였다. 이러한 반발은 오히려 영어전용 교육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방정부는 용광로 문화주의에 의해 아메리카 인디언 문화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인디언 언어들을 멸종시키려고 하였다. 1868년 인디언 평화 위원회(Indian Peace Commission)가 서부 인디언들을 복속시키는 방법들 중의 하나로 “미국이 겪는 문제의 2/3가 언어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다니게 될 학교를 세우고 영어로만 교육하게 하면 원주민어는 사라질 것이다. ... 언어가 같으면 함께 느끼고, 함께 생각할 수 있다. 전통과 습관도 같은 방법으로 동화될 것이다.”(Atkins 1887)라고 보고하였다.<sup>13)</sup> 그 결과 인디언 사무국은 영어전용 교육을 강압적으로 시행했고, 인디언 아이들을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멀리 떨어진 기숙학교에 배정함으로써 전통 문화를 근절시키려고 하고, 백인들 방식으로 옷을 입고 기독교 의식을 따르고 영어만 사용하게 하였다. 상당히 많은 인디언 부족어들은 이 기숙학교 제도에 의해 인디언 문화와는 격리되고 백인문화에만 순응하는 기간이 길어져 사라져가는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영어전용교육을 강화시키는 두 번째 계기는 20세기 초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민자들의 영어능력과 ‘미국화(Americanization)’의 이념적 결합이다. 즉 영어를 잘 하면 미국에 충성하는 것이고, 다른 언어를 말하면 미국에 대한 애국심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새로운

---

만든 인디언 최초의 음절문자를 이용하여 신문 The Cherokee Phoenix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이 신문은 인디언 이주법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기 위해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신문사가 몰수 되었다.

13) 인디언 평화 위원회는 1867년 전쟁 중이던 Plains 인디언들과의 평화 협상을 위해 결성되었다. 이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인디언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2 가지 사항이 언급되어 있다. 첫째는 인디언 언어 말살을 전제로 한 영어전용교육의 필요성이고, 둘째는 인디언들의 미국화 방법으로 언어 및 문화 말살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민자와 노동자들에게 미국화의 일환으로 자유경제 가치와 미국적 가치에 대한 수업과 영어 수업을 듣게 하였고, 영어학습은 미국에 대한 충성심의 상징이 되었다. 이러한 영어사용이 곧 애국심이라는 등식은 1917년 미국의 1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기름에 불을 붙인 듯 팽창하였다.<sup>14)</sup> 모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독일계 이주민들의 독일어 사용이 독일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여지자 영어전용이 곧 애국심의 표현이 되었고, 모든 이민자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게 되었다.<sup>15)</sup>

영어전용 캠페인이 팽배하던 시기에 이루어진 영어전용 인디언 교육은 모두 실패로 끝이 났다. 그것은 인디언 학생들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영어전용교육 교사들이 백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제도 능력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로 자신이 가르칠 인디언과 인디언 학생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무한 ‘무능’ 교사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어전용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디언 교사가 있었음에도 백인 우선 정책으로 능력 있는 인디언 교사를 배제하였다. 즉 영어전용 교육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인디언 학생을 가르칠 교사를 위한 전문화된 교육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인디언 교육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끼친 미국사회의 강압적 영어전용 노력도 미국화 운동이 사라지면서 함께 시들었다. 1924년 의회가 미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이민할당법’을 시행하였다. 유전적으로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인종, 부족 집단을 배제하는 법으로 특히 동부와 남부 유럽인의 이민을 극도로 제한하고 아시아인을 완전히 제외시켰다. 그 결과 타인종, 다민족의 위협이 사라지자 언어적 위협도 사라지고 영어전용을 위한 강압적 노력이 필요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은 다시 다문화주의를 바탕으로 한 언어의 다양성을 중시하게 되어 영어전용교육으로 피폐화된 인디언 교육에 활기를 불어 놓게 된다.

20세기 초에 존 콜리어(John Collier, 1923)는 기숙학교의 충격적인 실태와 인디언 교육을 관장했던 인디언 사무국(BIA)를 비난하면서 “인디언 사무국 행정은 국가적 수치다. 인디언들에게서 그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문화를 파괴하고, 종래에는 말살시키는 정책을 해왔다”고 하였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취임 후에 존 콜리어를 인디언 사무국 담당관으로 임명하여 인디언 뉴딜 정책을 펴게 하였다. 그는 인디언 보호구역 내에 보다 많은 통학학교를 만들었고, 인디언 부족어로 된 교과서도 쓰게 하였고, 인디언 문화와 언어를 학교에서 가르치게 하였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존 콜리어의 정책들에 대해 보수주의자들이 반발을 하게 되었고 보호구역 내의 학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다시 보호구역 밖의

14) 1918년 15개 주에서 영어전용교육을 법제화 하였다.

15)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처럼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반쪽짜리 미국인(hyphenated Americans)’로 남아 있었다. 루즈벨트는 1917년 주도한 ‘애국적’ 사회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의 국가와 하나의 언어를 가져야 한다.....건국 아버지들로부터 부여받은 언어와 문화에 반대하거나 대체하려는 어떤 시도도 허용될 수 없다.”

기숙학교로 인디언 아이들을 보내게 하였다 이것은 다시 영어전용교육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았다. 인디언다운 것보다 보편적인 미국적 요소가 우월하다는 의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사회에서는 영어의 중요성과 유용성이 커지고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영어가 보편적인 의사소통 매체로 자리 잡게 되면서 과거처럼 영어전용교육을 강압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영어전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영어를 합법적인 공용어(official language)로 만들기 위해 English First, U.S. English와 같은 단체들이 끊임없이 로비를 하고 있고, 2009년 현재 30여개 주가 영어를 공용어로 제정하고 있다.

이러는 가운데, 인디언 교육에 햇살을 밝히는 법이 1990년 부시 행정부에 의해 제정이 되었다.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 법(The American Native Languages Act)이라 불리는 이 법은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와 문화의 독립성과 독특함을 인정하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고 지켜갈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고 있다. 문화는 언어에 반영되어 언어에 의해 표현되기 때문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모든 학교에서 자신들의 언어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미국 정부는 이를 보호 및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법이다. 이 법은 John Reyhner(1993)에 의하면 3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첫째는 인디언의 자결권 정책의 유지요, 둘째는 인디언 언어 억제 정책을 펴온 역대 정부 정책을 뒤집는 것이요, 셋째는 영어전용 운동에 대한 반발이라는 것이다.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 법은 인디언들에게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스스로 보존하고 유지시켜야 할 권리를 보장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제 영어전용교육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고, 오로지 보다 나은 인디언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디언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부족어를 배워야 하는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리라 여긴다.

## 7. 인디언 언어와 문화 보존 노력

미국 정부의 인디언 언어 문화 말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디언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많은 인디언 부족어가 사라져 가고 있는 위험에 처해 있지만 인디언 언어와 문화를 되살리려는 노력을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한다.

### 7.1 체로키(Cherokee)어

체로키어는 현재 대부분 노인들이 사용하고, 젊은 세대들의 사용 숫자는 매우 적어 사라져 갈 위험에 처해 있어 다각적인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이를 위해 체로키어 보존 재단(Cherokee Preservation Foundation)은 어린이에서 어른까지 체로키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West Carolina University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특히 유아와 취학전 아이

들, 초등학교들이 체로키어를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집단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체로키 인디언 박물관(The Museum of the Cherokee Indian)에서도 사라져가는 체로키어를 재활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스미소니언 국립자연사 박물관과 함께 체로키어로 기록된 지난 150년간의 문서를 디지털화하고 번역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체로키 음절문자는 세쿼이아(Sequoyah)가 만든 인디언 최초의 문자이다. 체로키 인디언 박물관은 이러한 문자화 작업에 참여하는 젊은 연구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 체로키어를 가르치는 일도 함께 하고 있다.

## 7.2 나바호(Navajo)어

나바호어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사용 인구가 많은 아메리카 토착민 언어로서, 약 10만 명 이상의 화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에게 전승되고 있는 몇 안 되는 언어 중 하나이다. 나바호어는 나바호족의 모든 연령대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이 집에서 일상어로 사용한다. 많은 나바호족 부모가 그들의 자녀에게 나바호어를 전승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나바호어는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 중 예외적으로 사용 인구를 착실히 늘려가고 있다. 소수이긴 하지만 신문, 서적 및 간행물 등을 나바호어로 간행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디언 보호구역 외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으며, 특히 도시로 진출한 나바호족 젊은이들은 영어 사용에 빠르게 동화되어 버린다. 이는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정치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언어의 장기적인 발전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 7.3 기타

많은 인디언 부족들이 지역 학교들과 연계하여 자신들의 언어를 가르쳐 보존하려고 하고 있으며, 인디언 학교에서는 자신들의 부족어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한 예로, 워싱턴 주에는 현재 16개 인디언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의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층이기에 각 부족어의 사용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종래에는 사라질 위험에 있다고 한다. 인디언 부족들은 지역 교육청과 협력하여 공립학교에서 인디언 부족어를 인디언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보존 노력을 하고 있다.<sup>16)</sup> 많은 대학에서도 원주민 언어들을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오클라호마 대학에서는 현재 다섯 종류의 인디언 언어를 가르치고 있고 알래스카 대학, 와이오밍 대학, 아리조나 대학, 워싱턴 대학 등에서도 인디언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학과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인디언 문화와 부족어를 보존하고 확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

16) The Seattle Times, 2008년 12월 11일 기사

지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언어적 특징과 어족 관계 등을 제공하기도 (<http://www.native-languages.org/linguistics.htm#tree>) 하고, 거의 모든 인디언 부족어를 배울 수 있는 사이트([http://www.geocities.com/cheyenne\\_language/langlinks.htm](http://www.geocities.com/cheyenne_language/langlinks.htm)), 그리고 각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역사, 사회, 전통, 언어, 문화 등 전반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http://www.nativeamericans.com/index.htm>) 등이 있다.

20세기 중반부터 미국 언어학자들 또한 사라져 가는 수많은 인디언 부족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라지기 전에 인디언 부족어들을 기록해 두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록을 해 둔다고 해서 그 언어가 살아남는 것은 분명 아니다. 불행히도 기록은 남아있어도, 그 언어는 언어사용자가 없어 결국 죽은 언어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 8. 마무리 및 제언

지금까지 다양성을 중시하는 다문화 사회로서 미국이 인디언과 인디언 문화 및 언어에 대해서 유달리 적대적이고 가혹한 태도를 견지해 왔는지에 살펴보고, 미국의 사회문화적 변화가 인디언과 인디언 언어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시대적 흐름을 통해 알아보았고, 그리고 미국 정부의 인디언교육의 필연적 실패 원인도 함께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인디언의 언어, 문화 보존 노력도 함께 알아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디언 언어와 문화를 복원 및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할 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미국 정부 차원에서는 1993년 제정된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 법에 의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고 지켜갈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이를 보호 및 보장해 줄 의무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인디언 언어와 문화의 보존의 권리를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해 준 이상, 인디언들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인디언 언어와 문화를 재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언어 사용자이다. 2절에서도 언급 했듯이, 현재 미국 인디언 언어들의 90%가 사라질 위협에 처해있다고 하였다. 인디언 언어가 사라진다는 것은 곧 언어사용자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디언 언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언어 사용자가 많아야 한다. 그것도 젊은 사용자가 많아야 한다. 7절에서도 보았듯이, 많은 인디언 부족들의 노력이 어린이들에게 부족어를 가르치는 데 집중되어 있는 이유이다. 그런 점에서 모든 인디언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젊은 세대 교육에 헌신적 투자를 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인디언들이 지나치게 전통적인 자기 문화에 집착하여 국제화 시대의 흐름에 따른 문화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자칫 젊은 세대의 인디언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경시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인디언 문화의 독특성과

고유성을 유지한 채 현대적인 문화의 흐름을 반영하는 자발적인 변화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의 부족어를 배워야 할 자발적 동기 부여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Dick Littlebear(1990)가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백인교육제도에 의한 인디언 교육의 문제와 어려움을 인식하고, 오히려 백인교육제도를 활용하여 현재의 교육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에 맞도록 인디언의 문화를 재정비해야 한다. 즉 부모들이 자신들의 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하고, 인디언 부족어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언어교육을 실행해야 한다. 언어교육은 학교가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언어교육이 생활화됨으로써 인디언 부족어가 생존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위한 법을 제정한 것으로 인디언 언어들의 보존을 보장했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인디언들의 자구적인 처절한 노력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러한 인디언의 노력이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으려면, 정부가 인디언들이 자신의 부족어를 사용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게 경제적 독립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인디언 언어권 경제적 기반이 약하면 인디언 부족어를 고집하며 경제적 고통을 감수할 젊은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 생활권에서 경제적 고통 없이 생활하기를 더 바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인디언 부족어를 존립케 하기 위해서는 인디언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현재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수익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박장과 마약, 알코올 등의 거래와 같은 경제 활동이 아니다. 정말 건전하고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인디언 언어와 문화가 보존되고 활성화 되기 위해선 정부와 인디언 그리고 미국 사회가 서로 협력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그 활용도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한 국가의 언어정책이 그 나라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인 인디언 언어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이 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남아있는 인간 언어에 대한 언어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으리라 여긴다.

언어는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 언어의 수가 7000여개 정도 되지만 잘못된 언어 정책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놓인 언어가 많다.<sup>17)</sup> 실제로 북아메리카 인디언 부족어는 백인들이 이주할 당시에는 약 300여개였으나 미국의 동화정책과 인디언 말살 정책으로 인해 많은 인디언 부족어들이 사라져 버렸다. 특히 인디언들은 글이 없기 때

17) 유네스코 2008년 세계 언어의 해의 발표에 의하면 2주에 하나 꼴로 언어가 사라지고 있으면 2100년 이전에는 현존하는 언어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다고 한다. 위기에 처한 언어를 보호하고 언어의 다양성 증진의 필요성을 알리려 다언어주의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Living Tongues와 협력하여 Endangering Voices Project를 실시하고 있다.

문에 사라진 인디언 부족어들은 우리 인류 유산의 크나큰 상실이었다. 언어란 한번 사라지면 다시는 복원할 수 없는 소중한 유산이기에, 소수민족의 언어에 대한 정책 수립을 비정치적인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국제화와 더불어 많은 외국인들의 이주로 한국사회 또한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사회로의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를 통해 미국에서의 인디언에 대한 언어문화정책을 타산지식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점차 증가하는 한국 내 외국인들은 각자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한 채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어 그들이 장차 한국 내 소수 민족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또한 소수언어로 존재하는 현실이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언어문화교육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고, 단일민족을 강조해온 한국 사회의 배타적 속성이 이들 소수 외국인들과 그들의 문화, 언어를 쉽게 허용하려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인디언 언어 정책의 실패와 현실을 거울삼을 필요가 있다.

즉 이 연구를 통해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는 다문화주의에 근거한 미국의 언어교육정책, 언어정책이 미래 한국사회가 가야할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 문화가 공존하고, 각각의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고 추구하는 나라이다. 인류 역사상 이러한 민족적 차이, 문화적 차이를 분열이 아닌 조화로서 성공적으로 승화시킨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다. 문화적 차이를 오히려 상호적 풍요로움과 다양성으로 승화시킨 미국의 힘은 바로 다문화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주의는 영어를 모국어로 삼으면서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른 문화적 배경을 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이중언어 또는 다중언어(multilingual)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다문화적인 포용성과 창의성은 폐쇄적인 한국사회가 수용해야 할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봉중. (2001). *미국은 과연 특별한 나라인가?*. 서울: 소나무
- 김진우. (1985). *언어*. 서울: 탑출판사
- Atkins, J.D.C. (1887). Annual report of the commissioner of Indian affairs to the secretary of the interior for the year 1887.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Baron, D. (1990). *The English-only question: An official language for American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 Camarota, S.A. (2005). Immigrants at Mid-Decade: A Snapshot of America's Foreign-Born Population in 2005. Report of The 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
- Crawford, J. (1990). Language Freedom and Restriction: A Historical Approach to the Official Language Controversy. In J. Reyhner (Ed.), *Effective language education practices and native language survival*. 9-22. Choctaw, OK: Native American Language Issues.
- Littlebear, D. (1990). Effective Language Education Practices and Native Language Survival. In J. Reyhner (Ed.), *Effective language education practices and native language survival*. 1-8. Choctaw, OK: Native American Language Issues.
- Mey, Jacob L.. (1993) *Pragmatics: An Introduction*. Malden, MA.: Blackwell
- Reyhner, Jon. (1993). American Indian Language Policy and School Success. *The Journal of Educational Issues of Language Minority Students*. V. 12, Special Issue III pp. 35-59.
- Goodale, E. (1891). Self-teaching in the Indian schools. *Educational Review* 1, pp. 57-59.
- Latham, G. I. (1989). Thirteen most common needs of American Indian education in BIA schools. *Journal of American Indian Education*, 29(1), 1-11.
- Native American Languages Act of 1990, 104, 25 U.S.C. 2901-2906.
- Reyhner, J., & Eder, J. (1989). *A History of Indian Education*. Billings, MT: Eastern Montana College.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321 953)
- Teaching Indian Languages preserves heritage too. (2008, December 11) The Seattle Times

<http://www.nationalgeographic.com/mission/enduringvoices/index.html>

<http://www.livingtongues.org/enduringvoices.html>

<http://www.livingtongues.org>

<http://uwadmnweb.uwyo.edu/aist/default.asp>

<http://www.nativeamericans.com>

<http://www.nativeamericans.com/index.htm>

[http://www.geocities.com/cheyenne\\_language/langlinks.htm](http://www.geocities.com/cheyenne_language/langlinks.htm)

<http://www.native-languages.org/linguistics.htm#tree>

<http://www.us-english.org/inc/official/states.asp>

<http://www.cis.org/> (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

**이한규**

446-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1

경희대학교 영미어학부

전화: (031)201-2252

이메일: hglee@khu.ac.kr

Received: 2 February, 2010

Revised: 24 May, 2010

Accepted: 14 June, 2010